

지리산 '체험 학습' 추락 사고 버스 "제한 속도 2~3배 과속 질주"

학생들 "천천히 운전 부탁까지 했는데..."

지난 25일 지리산 '체험학습'을 마친 순천 매산중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심상재~천은사 횡단도로에서 추락,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은 참사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경찰은 27일 오전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관계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지점인 '수도암'(해발 760m) 인근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skid mark·제동 후 타이어 마찰 흔적)가 38.1m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가 건조상태(마찰계수 0.8)였고 경사도 20~30도인 점을 감안할 때, 사고 버스는 내리막길을 시속 53~63km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리산 횡단도로 전 구간의 속도 제한은 시속 20km다.

경찰은 그러나 전남대 병원에 입원 중인 버스 운전자 김모(43)씨가 의식 불명 상태여서 진술조사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차량의 운행 기록기를 수거,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에도 브레이크 파열 여부 등 차량 정밀분석을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26일 부상이 경미한 1학년 9반 안모(13)군 등 피해 학생 18명과 같은 학교 학생들을 싣고 가던 또 다른 버스 운전자 조모(54)씨 등 3

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경찰에서 "차가 너무 세게 달려 '천천히 운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화를 내며 그대로 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버스 운전사들도 "관광 버스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곤 선두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가 없다"

며 "어떤 이유인지 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갔으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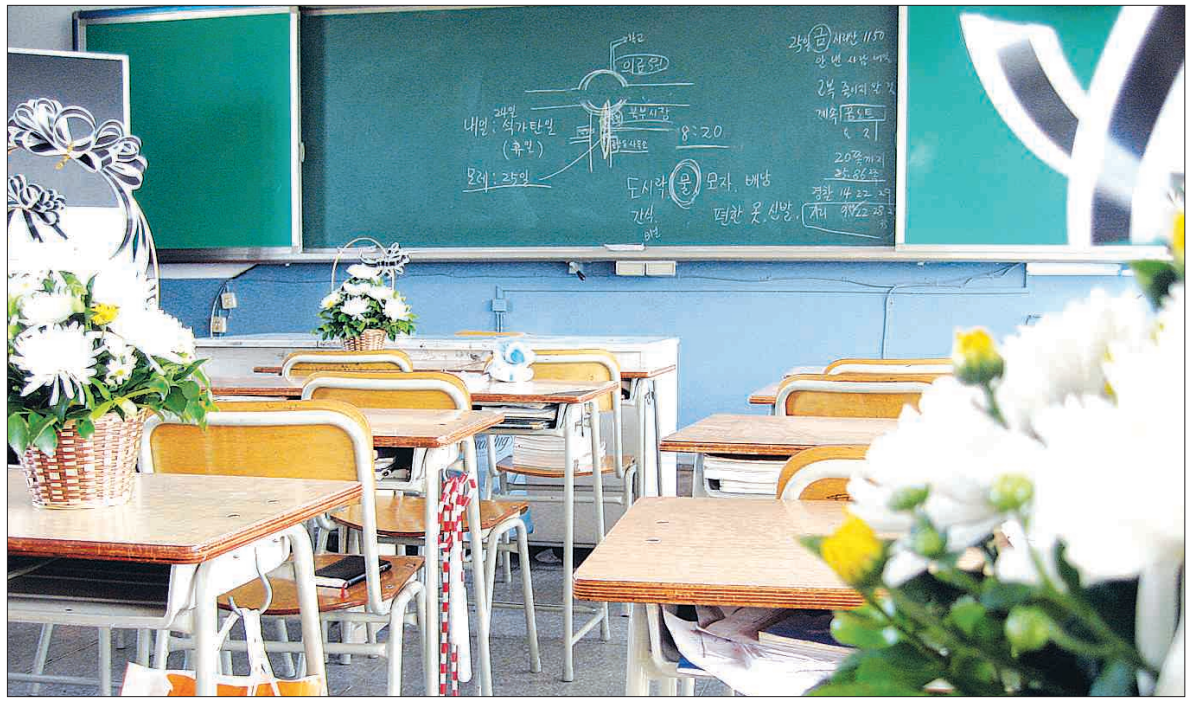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이 도로의 구조적 문제였는지와 함께 ▲미끄럼 방지 적사함(積沙函) ▲방호벽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고 충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밀 분석결과가 나오는 28일~31일께 과실 여부를 따져 사

법 처리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례경찰 조장래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사고 차량은 지난 10일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았지만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지입차인 사고차량이 지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주인 잃은 책상에 흰 국화 지난 25일 지리산 '체험학습' 후 심상재 횡단도로를 내려오던 중 버스 추락으로 5명이 숨진 순천 매산중학교 1학년 9반 교실. 주인 잃은 빈 책상에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흰 국화 꽃이 놓여졌다. 칠판에는 사고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 준비물·옷차림·약속장소 약속 등의 글씨가 보인다.

이들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똑같이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강씨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병

답하게 된다. 사망자 1인당 지급될 보험액은 안전벨트 착용 등 본인 과실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한 뒤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 학생에게 보상해 주는 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관상 자동차·화재·가스 보험 등 법령에 따라 의무 보험에 가입된 사고는 보험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험 지급은 어렵지만 장례비 명목으로 3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장례·보상문제 협의 난항 유가족·학생들 통곡소리만...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학생들의 장례 및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은 15인으로 대표단을 구성,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한 후 모든 장례 절차를 중단했다.

시신이 안치된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매산중학교 합동 분향소에는 25~27일 유가족·학생들의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다. 또 박준영 도지사·노관규 순천시장·김정환 전남도교육감·임영은 순천교육장 등 관계자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 어떻게= '순천 매산중학교 사고수습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수 전남도의원)는 27일 유가족과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논의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성명서에서 ▲적법 절차에 의한 학사 일정인지 여부 ▲산행 장소 선정 배경 ▲인솔교사 및 차량의 안전수칙 교육 여부 ▲사고회사 인허가 정당성 및 지입차 운송 적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유가족들은 또 순천교육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은 얼마나= 사고 차량은 지난해 12월 7일 S화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S화재는 대형사고 위험에 대비, 자동차종합보험업체인 D화재 자동차보험 등 14곳과 공동인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사고회사 인허가 정당성 및 지입차 운송 적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유가족들은 또 순천교육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중 순천출신 30대 추락사

어제 합천서, 1명은 중상

순천 출신의 국내 정상급 패러글라이더가 전국대회 중 사고로 숨졌다. 27일 오후 1시께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암산(해발 591m)에서 열린 '2007년 패러글라이딩 한국그린합천대회'에 참가 중이던 김국현(39·순천시)씨가 갑작스런 회오리바람으로 패러글라이드가 뒤집히는 바람에 추락, 현장에서 숨졌다.

또 인근에서 활강 중이던 패러글라이더 조모(여·39·경기도 이천시)씨도 함께 추락했지만, 나무에 몸이 걸리면서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여수 '금호 피앤비 화학'(주) 회사

원인 김씨는 이날 합천 대암산 정상에 활공장에서 이륙, 2~3분 뒤 해발 531m 지점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균형을 잃고 지상에 그대로 떨어졌다. 김씨는 올 3월 현재 국내랭킹 6위·세계랭킹 160위이며, 지난해 스페인 등 국제대회와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 개막했지만, 심한 강풍과 황사현상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첫 경기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회 진행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교통사고 뒤 신원 안밝히면 뺑소니

대법원 판결

김모씨는 회사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지만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여학생의 말만 믿고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모씨는 뺑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심이 없는 것을 운전석에 앉아 확인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갔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둘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똑같이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강씨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가 병

원에 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장소도 회사 앞이라는 점이 감안돼 도주 혐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뺑미러가 부서지는 정도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강씨의 경우 구조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도 쳐다보고만 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혹 피해자와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구호나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다친 곳이 있는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화물차 7대 유리창 파손

해남 건설현장서

27일 오전 6시10분께 해남군 해남읍 모 건설현장에 주차돼 있던 신모(41)씨의 화물차를 비롯, 화물차 6대의 앞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씨는 "아침에 일을 하려고 나왔더니 화물차의 앞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텃뜨연대 노조원들

이 비 노조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라고 강요했고 ▲노조원들이 전날 모임을 가진 점 ▲피해자가 모두 텃뜨연대 소속이 아닌 점 등에 주목,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 품평정원·호수공원 정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100 ▶ 공방: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공방: (062)525-9002 ▶ 본부: (063)271-5051

'등지처참' 돼지 낚 위로 천도재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최근 특전사 사령부 이전 반대 집회 도중 도살당한 새끼 돼지의 낚을 기리는 천도재(薦度齋)를 개최.

○"정광 스님이 주관한 이날 천도재에서 회인 50여 명은 죽은 돼지의 영정 사진과 돼지 모형이 놓인 분향소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애도 편지를 바친 것.

○"이들은 천도재를 마치고 "정부에서 동물 복지와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이전 반대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밟는데 묶은 뒤 잡아당겨 등지처참하는 참혹한 퍼포먼스를 펼쳐 비난. /연합뉴스

BORYUNG 보령제약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산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